

## 의상설화의 형성과 변이 양상

『삼국유사(三國遺事)』 전후소장사리조(前後所將舍利條)를 중심으로

Formation and Transition in Uisang(義湘)`s Tales –Centering on Jeonhusojangsarijo(前後所將舍利條) of Samgukyusa–

---

저자 (Authors) 김승호  
Seong Ho Kim

출처 (Source) [불교학보 53](#), 2009.12, 53–75(23 pages)  
[BUL GYO HAK BO 53](#), 2009.12, 53–75(2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505>

APA Style 김승호 (2009). 의상설화의 형성과 변이 양상. 불교학보, 53, 53–7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30 11: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의상설화의 형성과 변이 양상

## -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條를 중심으로 -

김 승 호\*

---

### < 목 차 >

---

- |                       |                      |
|-----------------------|----------------------|
| I. 머리말                | 2. 구비전승과 慶山설화        |
| II. 의상설화와 중국 고승담과의 대비 | IV. 의상설화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
| 1. 神兵保護談              | 1. 의상을 통한 불승의 주체성 모색 |
| 2. 佛牙求得談              | 2. 二聖경쟁담의 시대, 지역적 변개 |
| III. 의상설화의 정착과 변이     | V. 맺음말               |
| 1. 문헌전승과 「三國遺事」       |                      |
- 

### <한글요약>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條는 唐 유학시 의상이 신병의 엄호를 받았으며 불아를 구득하게 된 내력을 전해주고 있다. 神衆保護, 佛牙求得모티프를 동원하여 의상의 영험성을 들춰내는데 이야기의 본의가 실려 있다고 할 만하다. 한데 이는 당나라 고승 窺基와 道宣의 전승담을 부분적으로 발췌 합성한 것으로 밝혀진다. 義湘이 당나라에 유학한 적이 있고 당승들과 친교가 있었으므로 의상중심의 이야기로 변개되어 전승되다가 『三國遺事』에 정착된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자 했다. 『宋高僧傳』 窺基傳에는 규기가 스승인 도선에 비해 도력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규기대신 의상으로 인물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唐僧 도선이 천자에게서 부처 어금니를 전해 받아 사찰에 보관해왔다는 『宋高僧傳』의 내용을 의상의 부탁을 받은 도선이 천상에 청하여 부처님의 어금니를 빌려오도록 했고 이를 의상이 신라에 들여온 줄거리에 근거하여 『三國遺事』에 올렸다. 한편 前後所將舍利條 설화는 慶山지역에서 내용이 바뀌어 전해졌는데 앞서 '도선-의상'의 설화에서 '의상-원효'의 설화로 인물설정에 변이가 나타나며 의상 못지않게 원효도 신병의 가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의상 신중보호담의 전승내력, 곧 중국의 고승담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국내전승담으로, 다시 지역전설로 이어지는 다단한 전승의

---

\*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윤곽이 드러난다.

• 주제어

고승전승, 의상설화, 원효설화, 경쟁담, 삼국유사, 경산지역.

## 1. 머리말

삼국시대 설화를 폭넓게 담고 있는 『三國遺事』의 각 편의 형성과 후대 변이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三國遺事』 이외 삼국시대 설화를 총체화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각 편의 계통성을 밝히는 일이 수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三國遺事』를 이루는 139각편 모두의 형성과 후대 전승을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명의 여지가 발견되기도 한다.

본고는 『三國遺事』 전후소장사리조에 실린 의상설화의 형성과 계통적 면모를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설화 중의 神兵保護, 佛牙求得 이야기는 중국 고승담에 이미 들어있어 韓中 설화간의 비교, 검토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 글은 前後所將舍利條 의상이야기와 중국 고승설화와의 관련성 및 『三國遺事』에로의 정착과정에 나타나는 변이양상에 주목할 것이며 이후 후대 국내 전승의 양상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동안의 의상설화 연구가 『宋高僧傳』 소재 의상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sup>1)</sup> 본고는 중국 승전은 물론, 『三國遺事』, 근래 경산지역의 채록물을 근거로 의상전승의 범위, 시대적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前後所將舍利 소재 설화에 한정시킨 것이 한계일 수는 있으나 이 작업이 『三國遺事』 소재 설화의 형성 및 후대적 층위는 물론 중세기 불교 인물전승이 갖는 특성을 밝히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 II. 의상설화와 중국 고승담과의 대비

### 1. 神兵保護談

의상은 신라불교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답게 그에 관한 다양한 설화가 전하고 있다.<sup>2)</sup> 이 가운데 義湘傳敎는 계기성을 의식해 일생을 수습한 것으로

1) 그동안 이루어진 의상설화의 연구로는 민영규, 「선묘와 의상대사」, 《사상계》 6월호, 1953. 김운학, 「일본에 미친 의상선묘설화」, 『불교학보』 제13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6. 이두현, 「선묘와 광청아기설화」, 「연암현평효박사화갑기념논총」, 한남어문학회, 1987. 김홍철, 「한국사료설화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90. 윤태현, 「의상이야기의 전승양상」, (김태준, 김승호 엮음, 『우리역사인물전승』, 집문당, 1994). 김승호, 「의상설화의 성격」, 《불교춘추》 15호, 불교춘추사, 1999, pp.62~73. 등을 들 수 있겠으나 『宋高僧傳』 소재 의상전의 이야기에 치우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호국 행적, 사찰 건립, 제자 양성 등을 보다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체류 중에 일어난 일화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661년 渡唐하여 670년 귀국했으므로 의상에게는 11년에 걸친 중국체험이 있었던 셈인데 이국 체류시기였던 만큼 이때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 한다. 前後所將舍利條 소재 이야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의상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종남산 지장사 지엄존자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 이웃에 도선율사가 있었다. 늘 하늘의 공양을 받고 재를 올릴 때마다 하늘의 주방에서 음식을 보내왔다. 어느 날 도선율사가 의상법사를 재에 청했다. 의상이 와서 자리에 앉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하늘의 공양은 때가 지나도 이르지 않았다. 의상이 빈 바릿대로 돌아가니 천사는 그제야 내려왔다. 율사가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늦었소? 천사는 답했다. “은 골짜기에 신병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율사는 의상법사에게 신의 호의가 있음을 알고 그의 도력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 공구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이튿날 또 지엄과 의상 두 대사를 재에 청하여 그 사유를 자세히 말했던 것이다.<sup>3)</sup>

이를 소개하면서 일연은 단지 ‘전해오는 이야기(相傳)’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는 출처 제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던 평소의 태도와 다르다하겠는데 다양하게 설화 각 편을 모을지언정 역사가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에서 인용처를 적시하던 관행이 여기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면대로 상전의 체록이라면 의상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무엇보다 『三國遺事』 이전에 찬술된 송 고승전에 같은 서사구조의 이야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을 제사하면 아래와 같다.

<B> 窺基가 본사로 돌아오매 항상 전에 번역을 함께 한 사람들과 내왕하였으며 여러 차례 道宣律師를 찾아뵈기도 했다. 도선율사에게는 천상의 왕사들로서 곁에

- 2) 의상의 전기를 지향하는 문헌으로는 「三國遺事」 卷4 義湘傳教, 「宋高僧傳」 권4 義湘傳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외에 「三國遺事」 卷3의 前後所將舍利條, 卷3의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條, 卷4의 勝詮彌伽條, 권5의 眞定師孝善雙美條, 「海東高僧傳」 卷1之2 安舍傳, 義天 「圓宗文類」 卷22 海東華嚴初祖 忌辰願文條 등은 의상과 관련된 단편적 문헌전승에 속한다. 구비전승으로는 口碑文學大系 2-4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사찰창건과 득도」, 2-5의 「의상대를 지은 의상조사」, 7-5의 「선석사의 전설」, 7-9의 「개목사를 지은 의상조사와 맹사성」, 7-9의 「친등산과 의상도사」, 7-9의 「봉서사의 유래」, 7-10의 「의상조사가 지은 부석사」, 7-10의 「선묘룡의 도움으로 지은 부석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3) 「三國遺事」 卷3 塔像, 前後所將舍利.

“相傳云 昔義湘法師入唐 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 隣有宣律師 常受天供 每齋時 天廚送食 一日律師 請湘公齋 湘至坐定既久 天供過時不至 湘乃空鉢而歸 天使乃至 律師問 今日何故遲 天使曰 “滿洞有神兵遮擁 不能得入 於是律師知湘公有神衛 乃服其道勝 留其供具 翌日又邀儼湘二師齋 具陳其由”

돌봐주는 이가 있어 어떤 때에는 은밀하게 잡다한 일까지 거들어 주었다. 한데 그날따라 규기가 돌아간 다음에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으므로 도선율사가 그토록 늦어진 것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에 왕사가 말하기를 “마침 大乘菩薩(窺基)이 이곳에 계시고 선신으로서 그를 호위하는 이들이 많은 터여서 우리의 신통력으로는 제지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4)</sup>

위에 제시한 <B>는 『宋高僧傳』에 수록된 京兆大慈恩寺 窺基傳의 한 대목으로 <A>에서 보았던 神兵保護 모티브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도 고스란히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등장한 『宋高僧傳』 설화가 『三國遺事』 설화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전승범위로 보면 <A>는 국내 전승물이며 <B>는 중국내 전승물에 속한다. <A>는 권능과 신이가 남달랐던 탓에 하늘의 신병들이 곁에 붙어 다니다시피 의상을 호위했다는 것인데 <B>에서 보듯 窺基傳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끌어들이 인물만 바꾼 셈이다.

窺基(632~682)는 경조 장안 사람으로 17세에 출가하여 현장의 제자가 되었으며 광복사에 머물다가 뒤에 대자은사에 머물며 의상을 도와 번역에 참가하였다. 『성유식논술기』, 『대승법원의림장』 등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당대에 이미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주로 大慈恩寺에 머물며 저술에 전념한 탓에 慈恩法師라고도 불려졌다. 반면 道宣(596~667)은 窺基의 스승격으로 終南山에 머물며 律宗을 창시한 인물이었다. 거기다 속고승전, 광홍명집, 대당내전록, 사분율행사초 등을 찬술하여 오히려 명성으로는 규기를 앞서는 편이었다.

그런데 道宣傳에는 道宣이 窺基와 조우했던 일화는 나타나지 않으나 규기전에는 窺基가 영험력에서 道宣에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섰다는 점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선과 규기가 교류했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규기를 편드는 이야기인 것이다. 규기 전승은 이미 당나라 사증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며 이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宋高僧傳』 소재 규기전인 셈이다. 神兵보호 모티브를 삽입시키고 있는 규기이야기는 문헌으로 전승되어 『清涼山志』<sup>5)</sup> 高僧懿行條 窺基法師傳에 다시 실리게 된다. 전체 줄거리는 다를 것이 없으나 이곳에 실린 규기이야기는 『宋高僧傳』의 것보다 내용이 한결 구체적이다.

남산율사는 엄격하게 계품을 지켰으니 자그만 행동도 극도로 조심했으므로 규기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를 박대하게 되었다. 율사는 항상 천신이 점심을 가

4) 贊寧, 『宋高僧傳』 卷第4 義解, 窺基傳..

“(窺基)及歸本寺 恒與麟譯 舊人往還 屢謁宣律師 宣每有諸天王使者執事 或冥告雜務 爾日基去方來 宣怪其遲暮 對曰 適者大乘菩薩在此 善神翼從者多 我曹神通爲他所制故爾 ”

5) 鎮澄, 『清涼山志』, 1596.

저왔다. 규기가 울사를 찾았는데 정오가 지나도 하늘에서 점심이 내려오지 않다가 규기가 돌아간 뒤에야 천사가 도착하였다. 울사가 늦게 도착한 것을 꾸짖자 천사가 말하길, “이곳에 대승보살이 머무르는 동안 그를 엄히 보호하고 있는 신장들이 있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울사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잘못을 뉘우쳤다.<sup>6)</sup>

『宋高僧傳』과 비교할 때 내용의 차이가 없이 『宋高僧傳』을 근거로 삼아 전승된 이야기로 당 이후 중국내 문헌전승의 양상을 짚어보는데 유효하다. 전후소장사리조의 의상이야기가 『宋高僧傳』 규기전을 크게 변용한 것과 달리 明 萬曆 丙申(1596)년에 간행된 『淸涼山志』 규기전은 이전 전승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정도라 보면 될 것이다.

일연이 『三國遺事』를 찬술할 때 『송고승전』을 참고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시기적으로 『宋高僧傳』을 참고자료로 채택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유추된다. 따라서 의상과 마찬가지로 도선과 조우했으며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앞서 퍼진 규기, 도선의 전승을 받아들여 의상, 도선의 이야기로 변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변이의 주체를 일연이라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三國遺事』에서 밝히고 있듯 일연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문헌에 올린 채록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데 그 경우도 신라 내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중국 내 전승이 변이된 형태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前後所將舍利條의 의상전승은 의상이 중국에 머물던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배경이 終南山인 만큼 의상과 동행하여 지엄을 찾아가던 수행인, 혹은 또 다른 신라인에 의해 중국 체류담이 국내에 전파되었다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sup>7)</sup> 이때 이야기는 신라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상의 도력과 영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신라 화엄의 宗祖인데다 사증의 존경심이 높았던 당대 현실을 감안한다면 神兵保護만큼 적절한 모티브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상전교에 따르면 의상은 智儼을 師僧으로 모시고 화엄을 공부하고자 종남산을 찾게 된다. 하지만 유학 전에도 의상은 벌써 그 명성이 드높았던 학승이었으므로 입당 후 도선같은 당의 고승들과 접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전후사리소장조는 의상과 도선이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던가를 반증한다. 정황으로 보아 前後所將舍利조 소재 의상 이야기는 역사에 기반을 둔 설화에

6) 『淸涼山志』卷3, 中國佛事史叢刊 29, 明文書局印行(臺灣), 1980. p.101.

“南山律師 嚴持戒品 兢兢細行 見基修態 故薄之 律師常有天神送饌 基訪律師 坐時過午 天饌不至 基去天乃至 律師責以後時 天曰 適大乘菩薩在 翊衛甚嚴 故無敢入 律師聞之 大駭悔過”.

7) 의상이 지엄을 스승으로 공부했던 至相寺를 찾았던 신라승려로는 의상 말고도 그의 제자인 勝詮, 無染, 孝忠, 道亮이 있었는데 (변인석 외, 『중국 명산 사찰과 해동승려』, 주류성, 한국사학회, 2001, p.60.) 이들이 훗날 의상전승의 주체가 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본다.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중국으로 하고 있었던 까닭에 대중 간에 더 큰 호기심과 신빙성을 불러왔을 것이다. 이 설화의 출현을 두고는 또한 당 체류 시 의상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이가 드물다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야겠는데 중국에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출중한 도력을 과시했으리라 여기는 신라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일화가 요청되었다고 본다. 설화 담당층이 의상에게 보내는 높은 신뢰감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神兵保護談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神兵保護모티브는 언제부터 고승담에 수용되었을까. 『三國遺事』만을 근거로 할 때 神兵保護談이 의상에게 처음 부여되는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6세기 간행된 慧皎의 『高僧傳』에 이미 天童, 天使, 神衆 등이 고승의 집사로 등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들어있다.<sup>8)</sup> 고승의 신령한 감응력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모티브는 전승력을 유지해주면서 이후 비슷한 행적의 고승담에 핵심 모티브로 끼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宋高僧傳』에서 천동이나 신중이 나타나 도선이나 규기를 보호해준다는

- 8) 천상에서 도통한 승려를 호위하거나 從者를 내려 보내 아낌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줄거리는 중국 고승담에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당대 고승 道宣 역시 다음과 같이 天童의 극진한 시봉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관 중에 일찍이 심부의 은실산에 숨어있을 때 사람들은 천동이 좌우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보았다. 서명사에서 한밤중에 발을 잘못 디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잡을 것이 있어 몸을 지탱할 수 있었으며 헛디뎠어도 다친 데가 없었다. 한참을 바라보니 그 소년이었다. 도선이 이윽고 물기를 ‘그대는 누구길래 이 밤중에 여기 있는가.’ 했다. 소년이 말하길 ‘나는 사람이 아니고 비사문천왕의 아들인 나타로, 불법을 수호하는 까닭에 화상을 보호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했다.(貞觀中 曾隱沁部 雲臺山人 睹天童給侍左右 於西明寺夜行道 足跌前階 有物扶持 履空無害 熟顧視之 及少年也 宣遽問 何人中夜在此 少年曰 某非常人 卽毘沙門天王之那吒也 護法之故 擁護和尚 時之久矣) (『宋高僧傳』 卷第14, 道宣傳)

후한 영평 10년(67)으로부터 양나라 천강 18년(519)에 이르는 동안 고승의 자취를 기록한 혜교의 高僧傳에도 天人保護 모티브는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된다.

“그 후 섬주 백산의 영취사로 들어갔는데 그가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아니한 날 밤에 승서라는 스님의 꿈에 신인이 나타났는데 붉은 깃발과 흰 갑옷을 입은 신장이 산에 가득히 나왔다. 이에 승서가 까닭을 물었더니 ‘법사가 곧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서 받들어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後入剎白山靈鷲寺 未至之夜 沙門僧緒夢見神人 朱旗素甲 滿山而出 緒問其故 答曰 法師當入 故出奉迎 明旦待人 果是柔至) (慧皎, 『高僧傳』, 第8卷 義解 釋僧柔)

“석홍명은 부지런히 정진하며 육시에창을 그치지 않자 아침마다 물병이 절로 가득해졌는데 이는 실로 하늘의 동자들이 그를 위하여 심부름한 것이다.(誦法華 習禪定 精勤禮懺 六時不輟 每旦則水瓶自滿 實諸天童子以爲給使也) (『高僧傳』 卷12, 釋弘明)

아울러 위의 문헌에 비해 후대의 등장한 자료이지만 청량산지의 직령전에서도 천상 신병들이 출현하여 주인공을 가호하는 장면이 산견된다.

“당나라 스님인 澄靈이 무후 장안에서 처음에 대황 청 남쪽 기슭에 암자를 짓고 선정에 들었는데 구슬 소리가 들려 암자 밖으로 나아가 보니 홀연히 신병들이 구름 밖으로 보였는데 그 모양이 제각각이었으며 위위가 엄숙하고 정숙하였는데 조금 있다 구름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이상한 향기가 나는데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唐釋澄靈於武后長安初 卓庵大黃尖南麓 禪寂中 聞珠佩聲 出庵 忽見神兵現於雲表 部類各異 威肅儼然 俄而雲沒不現 但聞異香 充滿林谷) (中國佛志叢刊 Vol.9 『清涼山志』 卷7, 神兵現空.)

전개도 이전 유형담의 宋代的 수용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중국 고승담에 널리 발견되는 신병보호 설화 가운데서도 전후소장사리 이야기와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은 규기의 전승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야기의 열개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규기 대신 의상으로 그 인물만을 대체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식 있는 사중 가운데 누군가가 의상과 동시대에 활약한 규기의 전승을 수용하여 이를 의상의 전승담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일연의 시대까지 전해진 것으로 일단 정리된다.

## 2. 佛牙求得談

전후소장사리조 의상설화는 神兵保護談과 佛牙求得談이 두 이야기를 합성시켜 만든 것이다. 앞서 살핀 대로 신중들이 늘 의상을 보호했다는 신중보호담이 『宋高僧傳』 窺基이야기를 그대로 승계한 것인데 반해 佛牙求得 이야기는 『宋高僧傳』 道宣이야기를 근원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규기나 도선의 행적 중 출중한 감응력을 현시하는 것을 선별하여 의상이야기를 합성해 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佛牙구득과 관련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의상법사는 도선율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율사는 이미 천제의 존경을 받고 계시다니 듣자하니 제석궁에는 부처님의 마흔 다섯 개의 이 가운데 어금니 한 개가 있다고 하니 우리들을 위하여 천제에게 청해서 그것을 인간에 내려 보내어 복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다. 그 후에 율사는 천사와 함께 그 뜻을 상제에게 전했다더니 상제는 이례를 기하여 의상에 보내주었다. 의상은 예를 마친 뒤에 이것을 맞이하여 대궐에 모셨다.<sup>9)</sup>

前後所將舍利條는 부처님의 어금니가 애초에 어떻게 중국에서 전래했으며 이 땅에 들어온 뒤 어떤 과정을 거쳐 고려까지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佛牙 연혁담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佛牙는 원래 천상에 있던 것이었다. 그것이 신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의상의 노력과 도선의 협조 때문이었다.

의상이 도선과 교류했다면 도선은 천상과 교류하는 인물이었다. 의상이 도선에게 佛牙의 강림을 청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다행히 도선이 의상의 청을 받아들여 천사와 함께 상제에게 청원했고 마침내 의상은 이를 받아 신라로 들여 올 수가 있었다. 이 같은 내용 역시 앞서 나온 도선전이 변이된 것으

9) 『三國遺事』 卷3, 塔像 前後所將舍利.

“湘公從容謂宣曰 師既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 請下人間 爲福如何 律師後與天使 傳其意於上帝 帝限七日送與 湘公致敬訖 遶安大內”

로 보는 것이 옳다. 『三國遺事』보다 앞서 기록된 도선전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전승의 양상이 한층 뚜렷하게 드러난다. 『宋高僧傳』 도선전에서 산견되는 佛牙관련 삽입 대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도선이 말하기를 '저는 수행자로서 태자를 번잡스럽게 할 일이 없으나 태자는 위신이 자재한 분으로 서역에 불사를 지을만한 것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태자가 말하길 '내가 佛牙를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대사께서 별 생각이 없으신 같아서 바치지 못했습니다.' 했다. 그리고는 곧 도선에게 건네주었으며 도선은 보증하여 공양한 사실을 기록했다. 10)

<2> 그 천인이 전해준 佛牙는 은밀히 제자인 文綱에게 간수하도록 시켰으니 그는 승성사 동탑으로 가지고 갔다. 11)

<3> 대종 대력 2년(767) 이 절에 세항의 칙령을 내리기를 '그 절의 대덕인 도선율사에게 전해주어 석가 佛牙와 육사리를 얻게 되었으니 마땅히 右銀臺門에 나아가 짐은 참관의 예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2)

중국문헌에는 佛牙와 관련하여 의상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위의 기록에 따르자면 원래 佛牙를 보관하고 있던 인물은 천자의 태자였다. 태자는 도선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던 존재로 도선이 佛牙를 원한다는 사실을 내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태자가 도선이 佛牙로서 불사공덕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는 진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佛牙를 곧바로 건네준다. 이후 佛牙는 도선의 제자 문강에게 인계되다가 崇聖寺 東塔에 안치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佛牙가 지상에 봉안되기까지 태자와 도선의 지성 어린 발원이 있었다. 특히 도선의 노력이야말로 佛牙가 중국사찰에 봉안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할 터이다. <3>에서 보듯, 후대 황제들도 후대 佛牙를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도선의 공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내 전승이나 신라전승이나 佛牙求得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도선이다. 중국 쪽에서는 천인의 호위나 시종을 받았음은 물론 상제의 태자가 자발적으로 佛牙를 그에게 전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얼마나 천상과 소통이 자재한 인물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三國遺事』에 따르면 도선을 만난 자리에서 의상은 제석궁에 있는

10) 贊寧, 道宣傳, 『宋高僧傳』 卷第14.

“宣曰 貧道修行 無事煩太子 太子威神自在 西域有可作佛事者 願爲致之 太子曰 某有佛牙寶掌雖久 頭目猶捨 敢不奉獻 俄授于宣 宜保錄供養焉”

11) 贊寧, 상계서. “其天人付授佛牙 密令文綱掌護 持去崇聖寺東塔”

12) 贊寧, 상계서.

“至代宗大曆2年(767) 勅此寺三綱 如聞彼寺有大德道宣律師傳授得釋迦佛牙及肉舍利 宜即詣右銀臺門進來 朕要觀禮”

부처님의 마흔 개 치아 가운데 어금니 한 개가 있으니 천제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도선이 이에 협조한 것으로 돼있다. 의상은 佛牙가 천상에 수장되어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천자와 허물없이 교류하는 도선에게 접근하여 佛牙를 지상에 내려 보내줄 것을 청한 것이다. 『宋高僧傳』의 도선전에서 도선이 행했던 역을 여기서는 의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 『三國遺事』에서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佛牙를 구득하기까지 중국에서 벌인 의상의 활약상이다. 그는 입중 이래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이 땅에 佛牙를 가지고 오는 데 끝내 성공한다. 의상을 佛牙求得의 주체로 삼고자한 탓에 『三國遺事』에서 도선은 의상의 청원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기능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道宣-太子 중심으로 전과되던 이야기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義湘-道宣 중심으로 변이되는데 의상이 佛牙 구득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이야기로 탈바꿈하면서 중국체류 중 조우할 수 있었던 도선만 남고 태자는 이야기에서 아예 탈락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三國遺事』에서 의상이 佛牙를 구득하게 된 까닭을 전적으로 의상의 자발성과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宋高僧傳』에서는 천상에서 제공한 佛牙를 그대로 인계할 정도로 천상에서도 도선에 대한 경외심이 깊었음을 비쳐주고 있다. 각 전승집단은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변개시키기도 하지만 서사구조만은 이전의 것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 Ⅲ. 의상설화의 정착과 변이

#### 1. 문헌전승과 『三國遺事』

의상의 對唐 유학이후 그가 중국 체류 중 겪었던 일을 두고 신라 내에서 여러 일화들이 다양하게 파생되어나갔다고 본다. 특히 그의 유학에 기대를 걸고 있던 승단은 물론 민중들 사이에서도 그의 유학시 이야기는 큰 화제로 올랐을 것이며 고려시대까지 망실되지 않고 유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의상전교조는 그 같은 전승 단위가 배합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의상전교조가 일대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宋高僧傳』에 전하는 의상의 일생담과는 내용적 공통점을 추출하기 힘들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宋高僧傳』이 988년 찬술되었으므로 일연이 『三國遺事』를 찬술하던 당시(1281년 이전) 『宋高僧傳』을 참고했음이 틀림없겠는데 『宋高僧傳』 기록을 오히려

배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宋高僧傳』에서 밝히고 있는 중국 체류중의 일화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생각하건대 이는 의상을 바라보는 한중의 시각이 달랐던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중국인들에게 의상은 佛學에 같음을 느낀 나머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일개 유학승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편시적 시각은 의상의 중국내 자취를 전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登州에서 만난 俗家の 처녀 善妙를 부각시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승과 속가의 처녀를 중심에 둔 悲戀談이 전승집단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고일한 僧像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통인 승전의 전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찬자는 분명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흥미소로서 선묘와의 悲戀을 돌출시키고 그녀가 수호룡으로 변신해 의상을 수행하는가 하면 귀국 후에도 그가 여전히 의상의 수호자로 남았었다는 것은 의상의 인물기능적 약화를 전제로 한 전개이다.<sup>13)</sup>

『宋高僧傳』이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찬술된 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찬자가 이 땅의 사람이었다면 결코 唐 여인과의 인연담으로 의상의 생애를 도포하는 식의 서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상전은 의상이 해동화엄의 조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唐僧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귀국하여 화엄의 종지를 전파하고 부석사를 창건하게 된 것도 당나라 처녀 선묘의 헌신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치부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宋高僧傳』은 중국내 의상의 자취만을 확대해석한 체류기이다. 하지만 일연은 의상의 당 체류 행적을 언급하는 대목에서조차 이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의상을 내세워 민족적 자주성을 드러내고자 애썼다고 보는 것이 옳을 터인데 『宋高僧傳』의 내용에 편승하는 것은 불교적 영웅인 의상을 당에 복속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4)</sup>

前後所將舍利조는 제목이 시사 하는 것처럼 진흥왕 재위시인 태청 3년(549) 양나라로부터 사리 몇 과를 받고 정관 17년 계묘(643) 자장법사가 당으로부터 부처의 머리뼈 어금니 사리 100과를 가져왔던 사실 등 이후 이 땅에 부처사리가 어떻게 전래했는지, 그리고 언제 소실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정리해놓았다. 한데 여러 사리, 불구에 대한 유래를 밝히고 있으나 의상이 사리를 구득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는 전설만은 펍 상세한 편이다. 설화의 배경이 중국이며 대당 유학 기에 의상이 교류한 중국 승려들이 등장하는 점에서 보면 귀국 후 그 주

13)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p.64.

14) “三國遺事は 민족사의 자주성과 그 문화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관념이 전편을 지배하고 있다. (김태영, 「三國遺事に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이우성, 강만길 편, 창작과 비평사, 1990, p.141)”는 말은 적절한 지적으로 보이며 이는 의상의 전기화 과정과도 무관치 않은 특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위사람들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일단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중 간에 퍼져 내려오다가 고려에 들어와 일연에 의해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상설화가 『三國遺事』에 수록되기까지는 ‘중국내 구비전승→중국문헌에의 정착(『宋高僧傳』)→의상설화로의 변이전승→고려 문헌에의 정착(『三國遺事』)’의 전승적 흐름이 포착된다고 하겠다.

중국과 국내로 전승지역을 양분한다면 우선 중국내 구비전승 문헌정착으로의 과정이 있으며 신라 내 구비전승 문헌정착(『三國遺事』), 구비전승으로 국내 전승과정이란 또 하나의 전승적 흐름이 짚어진다. 앞서 확인한 대로 문헌에서 문헌으로 전승되는 과정에 『三國遺事』가 그 이전에 출현한 『宋高僧傳』의 이야기를 수용하되 의상중심의 내용으로 변개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 2. 구비전승과 慶山설화

그렇다면 『三國遺事』에 정착된 이후 등장한 설화들은 어떤 특성을 드러내게 되었을까. 『三國遺事』 곳곳에서 산견되듯, 내용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후 설화에도 의상과 천상의 결연 혹은 소통이 필수적 삽화로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된다. 梵魚寺의 창건연기는 의상설화에서 필수삽화로 동원되던 神兵保護가 그대로 유지됨은 물론 한층 중요 사건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해안에 왜구 10만 여명이 나타나 신라 공격의 신호를 기다리는 위기에서 신라왕에게 현몽이 따른다. 어떤 신인이 나타나 의상을 청하여 금정산아래 금정암에서 7일7야 화엄신중을 급히 독송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일러준 것이다. 왕은 몽조에 따라 의상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러자 병기로 무장한 제불 천왕 신중들이 출현하여 신력으로 정박해 있던 배와 함께 왜구들을 궤멸시킨다. 한 사람의 인명훼손도 없이 왜구들을 물리치게 된 왕은 승리를 자축하는 한편 의상의 청에 따라 금정산 아래 범어사를 창건하기에 이른다.<sup>15)</sup>

前後所將舍利條에서 신병의 기능이 의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엄호하는 것에 한정되었다면 梵魚寺 창건연기에서는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해내는 방위군으로 그 역할이 한층 막중해진다. 그런데 신병의 출현까지는 의상의 매개적 개입이 절대적이었다. 천병은 절로 강림한 것이 아니라 의상이 주야장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중보호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의상전승담은 고려를 거쳐 18세기까지 즐기치게 이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적 전승양상은 어떠한가. 神兵保護담 등 천상과의 소통을 핵심모티

15) 東溪, 『梵魚寺創建事蹟』.

브로 삼는 의상설화들의 사례는 더 거론할 수 있겠으나 현재 前後所將舍利條 설화와 서사구조가 일치하는 것으로는 '의상과 원효스님의 기싸움' 한편만이 확인되는 실정이다. 한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설화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를 바탕으로 의상설화의 후대적 변이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설화 담당층, 전승범위에 따라 설화내용이 얼마나 변이되는지를 예증하는데 긴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의상과 원효스님의 기싸움'<sup>16)</sup>의 줄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점심때만 되면 하늘의 선녀들이 의상스님에게 점심공양 거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 ② 원효스님은 공양주에게도 청하지 않고 손수 점심을 지어 먹었다.
- ③ 의상 스님이 원효스님의 기를 꺾기위해 일부러 점심때 원효스님을 초대하여 하늘에게 내린 공양을 같이 먹기로 약조했다.
- ④ 원효스님을 초대되어 왔으나 점심때가 지나서도 하늘의 선녀가 나타나지 않아 원효스님은 점심을 거른 채 돌아갔다.
- ⑤ 화가 난 의상스님이 뒤늦게 나타난 선녀에게 까닭을 묻자 암자 주위에 원효를 호위하는 신장들이 에워싸고 있어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다.
- ⑥ 의상스님은 원효스님을 시험하려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

원효와 의상이 신라를 대표하는 승려라는 사실은 인물전승의 분포 면에서도 쉽게 드러나는데 삼국시대의 승려로서 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고승담의 주인공은 원효와 의상에 집중되어있다. 그것도 두 승려가 동반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흔하며 형제지간으로 처리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sup>17)</sup> 약간의 나이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대에 활약한데다 함께 구법유학을 시도했을 만큼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전개라 할 것이다. 한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열가리기 등 대중의 호기심을 투영시키는 구조를 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에 제시한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기 싸움'은 道力 겨루기 이야기로 두 고승사이에 누가 신통력이 앞서는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효가 끼어들긴 했으나 이 각편이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條 의상설화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前後所將舍利條 의상설화가 중국에서 앞서 나온 신증보호 모티브를 수용하여 형성된 후 문헌에 정착

16) 이동근 김중국, 「경산지방설화의 전승안」, 『경산지방의설화문학연구』, 중문출판사, 2005, pp.120~122.

17) 『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마침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형은 원효이며 아우는 의상으로 모두 어릴 때부터 빼어났으니 生以知之하여 육적에 능통했다. 노파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아들을 성장시키려 했는데 서리맞은 소나무요, 물에 비친 달로 맑은 빛을 비유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遂生二子 兄曰元曉 弟曰義淵 皆少挺生知 能通六籍 老婆切意 圓成二利 霜松水月 未足比其清華 仙露明珠 詎能方其朗潤)”

된 예라면 그것이 구비전승을 통해 변이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기싸움’ 인 것이다.

원효가 태어난 곳이 경산이라는 점은 원래 설화의 내용적 변이를 불러온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원효가 뛰어난 고승임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처럼 여겨졌을 터인데 『三國遺事』에서 道宣과의 대응을 통해 의상의 천상적 감응력을 이끌어냈듯이 경산지역에서는 의상과 대비시켜 결국 원효가 한 수 위임을 밝히려 들었다. 어느 한 이야기의 유형에 속할 수 있는 버전은 역사적, 지역적, 그리고 서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sup>18)</sup> 는 점을 여기서 선명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경산지방에서 채록된 설화가 前後所將舍利조에서 연원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승되었다. 의상이야기는 ‘神兵保護모티프+佛牙求得모티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중에서 佛牙求得 모티프는 원효에게 의미 없다고 판단해 배제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前後所將舍利條에서는 佛牙求得談이 중심적 설화이지만 원효 혹은 경산과 연계된 이야기로 편성하다보니 佛牙 이야기는 소거해도 무방한 것이 되어 버렸다. 아울러 원효의 도반으로서 의상은 남기되 그를 부차적 인물로 격을 낮추고 지역 위인인 원효를 우위에 서게 했다. 경산설화는 의상의 영험력과 도력을 현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三國遺事』 설화를 수용하되 그 지역의 역사인물인 원효를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별개로 얼마든지 인물의 자취를 변이하는 인물전승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상할 것이 없겠는데 지역민들은 누구에 비기더라도 원효만한 인물이 없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원효-의상의 겨루기 방식으로 보여주되 의상에게 상투적으로 따라붙던 神兵保護설화를 원효에게 부연함으로써 원효중심의 설화로 탈바꿈시키게 된 것이다.

#### IV. 의상설화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 1. 의상을 통한 불승의 주체성 모색

이제까지 통시적 맥락을 중시하면서 몇 가지 의상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그 면모를 살폈다. 이후는 각 편 단위로 논의된 사항을 한데 모아 의상설화의 형성과 전승변이에 나타난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의상은 구법유학의 이력을 지닌 명승답게 중국 찬녕의 『宋高僧傳』, 崔致遠의 浮石尊者傳, 『三國遺事』의 義湘傳教 등에 오른다. 하지만 이들 문헌 기록도 역시 상당부분 유학

18) 카트린 피게알더 저,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 2009, p.103.

일화를 전한다. 그런데 의상의 생애가운데 중국에 체류했던 시기의 행적을 전하는 『宋高僧傳』과 『三國遺事』의 기록은 서사적 초점을 매우 달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宋高僧傳』이 훨씬 앞서 찬술된 것이므로 『宋高僧傳』을 통해 의상의 중국내 행적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일 터이나 『三國遺事』는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宋高僧傳』규기 설화중의 신중보호담, 도선설화중의 佛牙구득담을 합성시켜 前後所將舍利조에 수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상의 신중보호담이 『三國遺事』에 정착된 이후에도 전승이 지속되었음은 분명하다. 경산지역에서 채록된 원효암 설화는 그 서사적 승계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사례로 지목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서사의 초점이 원효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의상보다 원효가 한층 높은 감응력을 지녔다는 내용으로 선회했음에도 前後所將舍利條가 설화의 발원처임이 쉽게 판명된다. 두 설화의 서사구조가 온전히 일치한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결국 중국인물 전승이 변개되어 의상의 신중보호 설화로 바뀌는 문헌전승이 확인되며 다시 『三國遺事』에 정착된 문헌설화가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구비설화로 전파된 것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에서 발원한 신중보호담이 고려 『三國遺事』에 정착되고 이후 기나긴 세월의 간격을 넘어 지역민들 사이에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각 설화 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처 항목	① 『宋高僧傳』, 규기전	②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	③ 『경산의 전설과 민담』,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기싸움'
찬술 및 채록시기	988년	1281년	2002년
전승매개	문헌	문헌	구비
설화배경	중국	중국	한국
전승범위	중국	한국	경산지역
핵심모티프	神兵保護	神兵保護/佛牙구득	神兵保護
경쟁결과	규기>도선	의상>도선	원효>의상

①,②,③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중보호 모티프를 삽입한 고승담이라는 점 때문이다. 설화의 찬술 및 채록시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의상이야기는 ①→②→③ 순서로 출현한다. ①에는 의상이 등장하지 않지만 ①이 없었다면 ②이야기가 생겨날 수 없었다. 곧 ①은 ②의 근원설화이다. ①에서는 당나라 고승인 窺基가 그 스승격인 도선 못지않게 영험한 감응력을 지녔던 인물임을 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천상의 신병들이 늘 규기를 보

위하는 바람에 명성을 자랑하던 도선이 일순간 낭패를 겪는다. 내외의 많은 제자들이 도선을 추종했으며 알현자가 쇠도하던 현실과 일치하는 줄거리이다. 하지만 이 땅의 전승자들은 중국고승들의 도력을 강조하는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서사구조에 주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②의 『三國遺事』에서는 도선-의상의 이야기로 인물 설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규기대신 의상으로 인물을 바꾸는 한편 서사구조는 그대로 따르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窺基에서 義湘으로 바뀌었을 뿐 서사구조가 고스란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은 『宋高僧傳』 소재 규기전을 근원설화로 삼았다 하겠다. 중국 문헌설화를 근거로 하여 의상의 설화가 탄생한 셈인데 우선 국내 전승과 관련지어서는 의상의 제자 혹은 구법유학시 그를 수행한 일행을 전승의 주체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언제 생긴 것일까. 일연이 전해오던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라 했으니 의상이 활약하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현전하는 문헌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宋高僧傳』이 우리나라에 전래 된 이후에 생겼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까닭은 무엇보다 前後所將舍利條의 의상설화가 『宋高僧傳』 규기전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인데 보기에 따라 일연을 설화변이의 장본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다. 일연이 의상의 신중보호담을 소개하면서 相傳의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이는 상투적 전제에 불과할 뿐 일연 자신이 규기의 신중보호설화를 끌어와 의상설화로 둔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일연은 의상을 단지 신라 내 화엄종을 영도하는 수장으로서 의미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三國遺事』 여러 곳에서 산견된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그에게 의상은 당에 맞서 신라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주체적 인격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적합한 인물로 지목된 것 같다. 다음의 설화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거니와 의상이 유학초입에 벌써 唐僧들의 기를 꺾어 놓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지엄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해동에서 나와 가지와 잎이 넓게 우거져 중국에까지 와서 덮었다. 그 나무 위에 봉황새의 보금자리 있었으므로 올라가보니 한 개의 마니보주가 있었는데 빛이 멀리 비치는 것이었다. 꿈을 깬 후 놀랍기도 하고 이상해서 깨곳이 청소하고 기다렸더니 의상이 왔다. 지엄은 특별한 예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는 것은 그대가 나에게 올 징조였구나. 그리하여 제자 됨을 허락하니 의상은 화엄경의 미묘한 뜻을 의미한 부분까지 분석했다. 지엄은 학문을 서로 질의할 만한 사람을 반가이 맞아 새로운 이치를 발명해 내었으니 심오하고 은미한 이치를 찾아냈으니 남초와 천초가 그 본색을 잃은 것과 같다 하겠다.<sup>19)</sup>

義湘傳敎條에 따르면 위에 제시한대로 지엄의 제자로 들어가는 유학초의 사정과 함께 구국기도로 왜병의 신라침략을 방어한 사실, 부석사창건과 賢首와의 편지왕래, 그리고 제자양성과 신이한 행적을 차례대로 나열해놓고 있다. 설화적 색채가 강한 연대기적 이야기들로 엮어진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중국체류시의 일화들이며 내용도 매우 상세한 편이다. 義湘傳敎條가 전 생애를 조망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는지 모르나 생애 가운데 핵심 부위만 선별해 제시했다는 느낌이 앞서는 기록이다. 의상의 생애 중 唐으로의 유학은 특히 명기할 단위로 인식된 것 같다. 구법유학과 관련된 의상의 설화가 『宋高僧傳』이나 『三國遺事』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의 구법유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韓中 韓 구별 없이 다양하게 등장한다.<sup>20)</sup>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상이 총지가 부족해서 타자에 다가가 배움을 갈구하는 약자로서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형상은 발견할 수가 없다.

위 설화는 의상이 講益의 대상으로 삼았던 智儼(602~668)이 범상치 않은 현몽을 통해 의상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엄은 의상의 스승으로서 고일하고 비상한 의상의 면모를 밝히기 위해 투입된 비교대상으로서의 역할에 머문다. 智儼의 僧史的 위치를 살피면 이는 분명해진다. 지엄은 서안 終南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고승으로 杜順(557~640)의 법통을 이어 화엄종을 실질적으로 확립했을 뿐더러 법장, 정관 그리고 의상 등 훗날 화엄승으로 자리매김 되는 승려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한 인물이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상전교는 스승 아닌 제자인 의상만이 돌출되는 현상이 빚어졌다.<sup>21)</sup> 제자의 기량이 스승에 못지않은 것으로 형상화한 점에 비추어 전승자는 의상의 유학 전후사정에 밝은 제자, 혹은 지지자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일연도 이 설화의 창자 혹은 운반자로 지목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데 설화를 소개한 연후에 첨언해 놓은 말은 펍 시사적이다. “...심오하고 은미한 이치를 찾아내어 감초와 천초가 그 본색을 잃은 것과 같다.(可謂鉤深索隱 藍茜沮本色)” 이는 설화에 대한 일연의 評決로 보아 부족함이 없으며 의상을 바라보는 일연의 입장을 요약한 부분으로 새겨도 좋겠다. 일연은 의상이 배움의 갈증을 억누르지 못한 끝에 구법의 길에

19) 『三國遺事』 卷第 4 義解. 義湘傳敎條. “儼前夕夢一大樹生海東 枝葉溥布 來蔭神州 上有鳳巢 登視之 有一摩尼寶珠 光明屬遠 覺而驚異 洒掃而待 湘乃至 殊禮迎際 從容謂曰 吾昨者之夢 子來投我之兆 許爲入室 雜花妙旨 剖析(析)幽微 儼奇逢郢質 克發新致 可謂鉤深索隱 藍茜沮本色”

20) 의상이 원효와 더불어 유학을 결행했다가 원효가 무덤 안에서 잠결에 해골물을 마신 후 깨달은 바 있어 신라로 되돌아가고 의상만이 홀로 유학길을 올랐다는 이야기는 『宋高僧傳』 원효조에 오른 이래 중국문헌과 우리 구전 전승담에서 가장 폭넓게 발견되는 이야기이다.

21) 의상의 법계를 도시한 고익진에 따르면 화엄의 법통은 두순-지엄-의상-표훈 등 10제자-신림-법용 등 5인으로 후속된다고 한다. (고익진, 『한국 고대 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5, p.320).

올랐으나 스승인 지엄에 비해 부족할 것이 없는, 오히려 스승을 능가하는 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韓中 고승의 결연담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자/배우는 자'로 인물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의상의 중국내 체류행적을 전하는 의상전교나 前後所將舍利조는 결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설화들은 唐 고승에 대한 의존적 시각은커녕 의상을 통해 신라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밝히려는 의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 2. 二聖경쟁담의 시대, 지역적 변개

『三國遺事』에서는 의상전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의상의 영험성과 근기의 출증함을 강조하는 이야기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洛山二大聖 觀音正趣條에도 前後所將舍利條와 같이 의상중심의 인물 그리기적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 의상이 관음을 친견하는 과정에도 龍衆, 天衆의 가호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입당 시 도선과 조우하는 자리에서 도선보호 천사의 접근을 방해한 신병들의 기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의상이 앞서 관음을 친견한 것으로 밝혀 원효보다 그 우위에서 있음을 전하는데 이 역시 前後所將舍利條의 구조와 일맥상통하는 의상 우위의 전개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의상 설화는 원효 같은 고승과의 경쟁담, 제자를 이끌고 불학을 전수하는 전교담, 신출귀몰한 능력을 통해 천상, 용궁과 소통하는 신이담 등의 서사적 유형성을 드러낸다.

중국 입당시 交學, 交流관계를 기저에 깔고 나타난 이야기가 '지엄-의상' 혹은 '도선-의상'의 구도로 전해지던 것이 국내에서는 '의상-원효' 이야기로 설정이 바뀐다. 의상을 중심에 두고 화엄종의 사승인 智儼, 道宣을 각각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 배경의 초기 경쟁담이라면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원효-의상'의 二聖 경쟁담으로 변화가 인 것이다. 구법유학의 관심이 사라지는 시대를 반영하는 서사구조의 변화라 하겠다.

다만 왜 의상과 원효중심의 전개인가는 의문이 남는다. 당대 의상의 도반으로는 여러 승려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 전승자들은 일찍부터 '의상-원효'의 인물설정과 서사유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개중에는 두 고승의 친연성을 말하는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두 고승이 동시대에 활약했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위업을 쌓았다는 점에서 그런 구도는 얼마든지 상정되는 것이다. 한데 민중 간에서는 누가 한수 위일까 하는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경쟁담으로서 ③은 '의상-원효'간의 도력 겨루기에 초점을 맞춘 한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의상설화는 문자를 매개로 『三國遺事』에 정착되었다가 다시 전승의 흐름

을 이어갔다. 설화에서 전승매개의 차이는 여러 특징을 불러오는데 문헌에서 구비로 전승매개가 바뀌면 내용도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식자층과 문맹층의 욕망과 이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가 寺衆 간에 수수되던 설화였다면 ③은 특정 지역의 민중들이 전파시킨 지역설화에 속한다. ③은 근원설화로서 ①,②에 비해 펍 늦게 전파된 이야기이므로 ①, ②에 보이는 역사 증언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탈락 되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 의상이 당나라 유학중 도선을 방문한 사건배경이나 도선과의 만남이 단초가 되어 佛牙를 얻을 수 있었다는 佛牙緣起가 탈락되어 있어 후대 전승자들에게 이 화소는 더 이상 유의미한 내용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을 반증해 준다. 그 대신 고장의 위인인 원효를 부각시키고자하는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의상은 이 땅의 고승이므로 여전히 등장하지만 唐僧인 도선은 아예 사라지게 되며 의상의 중국내 체류 자취, 그리고 당의 승려들도 더불어 자취를 감추는 대신 민담에 곧잘 수용되는 겨루기모티프 중심으로 이야기의 변이가 일어난다.

사실 의상과 원효 중 누구의 도력이 앞서는가 하는 관심은 洛山二大聖 觀音正趣條에도 어느 정도 기미를 드러냈다.<sup>22)</sup> 하지만 이는 팔법계품에 나오는 대로 善財童子가 南海 補怛洛迦山으로 觀音菩薩을 찾아가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둔 破生설화<sup>23)</sup>로 중국고승담에 연원을 두고 있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기싸움’과는 계통을 달리한다.

①,②는 당대 뛰어난 고승이 등장하여 나름의 비범성을 현시해 보이고 있다. 한데 중국고승만이 등장하는 ①과 달리 ②에서는 한중 고승으로 설정이 달라지더니 韓中 고승간 경쟁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시대를 지나며 ②조차 설화담당자의 흥미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③과 같은 경쟁담이 출현하는 시기를 맞는다. 고승간의 겨루기화소를 공통적으로 개입시키고 있으나 ②가 의상을 통해 신라승의 자긍심을 고취한 경우라면 ③은 원효를 통해 경산

22) 가령 「三國遺事」 卷第 4 塔像 洛山二大聖 觀音正趣條는 眞容 친견의 목표를 앞에 두고 누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느냐를 전제로 의상과 원효가 각각 주인공으로 나서 최종의 원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는 설화이다. 앞서 소개되고 있는 의상의 경우, 그는 7일간 재계한후 용천과 천중 팔부 시종의 인도로 굴속에 들어가다가 하면 다시 7일을 재계함으로써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살이 자신이 주처하던 터를 점지해줌으로써 사지점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이른다.

진용을 친견하겠다는 원으로 가득 차 있기는 원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낙산의 굴을 진용주처로 확신하고 그곳을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애써온 보람도 없이 그는 진용친견의 원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하지만 그는 그전에 이미 관음보살과 조우했으면서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버를 베며 월경대를 빠는 여인이 성녀이자 관음인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외면하고 뒤늦게 청조의 질책으로 그 두 여인이 다름 아닌 관음이었을 깨닫게 된다.

23) 한국불교연구원, 「낙산사」, 일지사, 1978, p.17.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내용으로 선회한 것이 되겠다. 신중보호라는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전승시대, 범위라는 설화 변인요소가 작동함으로써 '규기>도선, 의상>도선, 원효>의상'의 결과를 동반하는 서사로의 변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條에 들어있는 의상설화의 전승적 맥락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연은 민중 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채록했을 따름이라 했으나 이 설화는 기실 『宋高僧傳』의 窺基傳, 道宣傳에 필수적 삽화로 채택되고 있는 신병보호, 불아구득담을 합성한 이야기로 밝혀진다. 일연이 중국 승전을 차용한 까닭은 일차적으로 唐에 대한 외세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자주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치 않았다 하겠다. 신이성을 함축하는 신병보호 모티브는 이후 보다 확장된 범위로 범어사연기설화에 수용된다. 하지만 근래 채록된 慶山설화는 이전의 의상설화와 달리 의상 대신 원효를 돌출시키는 구조로 또 다른 변개가 나타난다. 여기서 역사사실과 달리 전승담이란 담당층, 전승시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변개가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거나 과거 일연이 중국 고승담을 전복, 변형시켜 의상을 부각시키는데 진력했다면 慶山지역에서는 의상 대신 원효의 도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의 서사적 변개를 꾀했다 하겠다. 의상설화는 韓中間의 고승전승, 삼국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고승의 전승 양상을 증거하는 혼치 않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 〈참고문헌〉

- 一然, 『三國遺事』.
- 慧皎, 『高僧傳』.
- 贊寧, 『宋高僧傳』.
- 『清涼山志』 卷3 卷7, 中國佛寺史志彙刊 29, 明文書局印行(臺灣), 1980.
- 東溪, 梵魚寺創建事蹟.
- 覺訓, 『海東高僧傳』.
- 義天, 『圓宗文類』.
- 『口碑文學大系』 2-4, 2-5, 7-5, 7-9, 7-9, 7-10.
- 강원도, 『강원도 향교 서원 사찰지』, 강원출판사, 1992.
- 『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 민영규, 『선묘와 의상대사』, 『사상계』6월호, 1953.
- 김운학, 『일본에 미친 의상선묘설화』, 『불교학보』 제13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6.
- 한국불교연구원, 『낙산사』, 일지사, 1978.
- 이두현, 『선묘와 광청아기설화』, 『연암현평효박사 화갑기념 논총』, 한남어문학회, 1987.
-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5.
- 김태영, 『『三國遺事』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이우성, 강만길 편, 창작과 비평사, 1990.
- 김홍철, 『한국사료설화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윤태현, 『의상이야기의 전승양상』(김태준, 김승호 엮음, 『우리역사 인물전승』, 집문당, 1994.
- 이동근, 김종국, 『경산지방설화의전승안』, 『경산지방의 설화문학연구』, 중문출판사, 2005.
- 변인석 외, 『중국 명산 사찰과 해동승려』, 주류성, 한국사학회, 2001.
- 카트린 피게알더 저,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 2009.
- 김승호, 『의상설화의 의미와 성격』, 『불교춘추』 15호, 불교춘추사, 1999.
-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Abstract

Formation and Transition in  
Uisang(義湘)'s Tales  
- Centering on  
Jeonhusojangsarijo(前後所將舍利條) of  
Samgukyusa -

Kim, Seong-Ho

In the article of Jeonhusojangsarijo(前後所將舍利條) in Samgukyusa(三國遺事), a situation that Buddha's tooth came to enter a country from China is reported in detail.

As the central character of this case is Uisang, this story can be known to allow Uisang's miracle to be strongly projected by mobilizing Shinjungboho(神衆保護) story and Bulagudeuk(佛牙求得) story. By the way, two tales are those that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transmission tales of the old monks Gyugi(窺基) and Doseon(道宣) in Tang dynasty, thereby being noted. Uisang had ever studied in Tang dynasty. Both monks had friendship. Thus, there is no unreasonableness even if inferring it to be changed and transmitted into a story of centering on Uisang and be settled as letters in Samgukyusa. In other words, in Gyugi's biography of Songgoseungjeon(宋高僧傳), Gyugi is shown to be not behind Doryeok(道力) compared to Doseon, who is a teacher. Here is what the character was changed into Uisang instead of Gyugi. In addition, it changed the contents of Doseon's biography as saying that Dangseung(唐僧) Doseon had been delivered Buddha's back tooth from Cheonja, and had kept it at temple. Doseon, who received a request of Uisang, asked Cheonsang to borrow Buddha's back tooth. Uisang bought this to Silla. The contents are those that were recorded in Samgukyusa. Since then, the tale of Jeonhusojangsarijo(前後所將舍利條) was changed the contents by

Gyeongsan region to be transmitted. In the above Doseon-Uisang tales, a change of establishing character is shown into the Uisang-Wonhyo tales, thereby emphasizing that even Wonhyo has divine protection no less than Uisang. Uisang's tale was formed in a story of transmission in China, and then is shown to be a story of domestic transmission, and again a story of regional transmission. Accordingly, it is just one piece, but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that makes it realized that the history of complex transmission is hidden on the other side.

• **Key words**

Transmission of old monk, Uisang(義湘)'s tales, Wonhyo's tales, Competing story, Samgukyusa, Gyeongsan region.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21일.